



제716회 큐레이터와의 대화(2023년 3월 15일)

## 석가모니의 생애를 함께 보다

유경희, 203호 불교회화실 18:00~18:30

석가모니부처의 생애를 여덟 장면으로 그린 팔상도八相圖는 인류의 오랜 스승인 부처의 삶을 엿볼 수 있는 오래된 사진입니다. 호명보살護明菩薩이 마야부인에게 잉태되는 장면을 중심으로 한 **도솔래의상兜率來儀相**, 마야부인이 룸비니동산에서 태자를 낳는 장면을 중심으로 그의 탄생이 중심을 이루는 **비람강생상毘藍降生相**, 출가를 결심한 싯타르타 태자를 볼 수 있는 **사문유관상四門遊觀相**, 말을 타고 성을 넘어 출가하는 태자의 모습을 표현한 **유성출가상踰城出家相**, 출가한 태자가 설산에서 수도하는 **설산수도상雪山修道相**, 태자가 수행을 방해하는 마군들의 온갖 유혹과 위협을 물리치고 항복을 받아내는 **수하항마상樹下降魔相**, 정각을 이룬 석가모니가 첫 설법한 장면을 비롯해 성도 후 부처님의 전법과 관련된 주요한 이야기를 표현한 **녹원전법상鹿苑轉法相**, 마지막으로 석가모니가 사라쌍수 아래에서 입멸하는 장면과 열반을 즈음할 때 여러 가지 일화를 그린 **쌍림열반상雙林涅槃相**이 팔상도를 구성하는 여덟 주제입니다.

안정된 구성과 밝은 채색으로 석가모니의 일생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이 팔상도는 전라도를 중심으로 활동했던 18세기 화승인 비현丕賢(1759~1783 활동)과 평삼平三이 조성하였습니다. 수화승 비현은 정확한 생몰년은 알 수 없지만 전라남도 선암사, 흥국사, 불갑사, 만연사, 태인사 등을 중심으로 활동하였던 승려입니다. 비현은 선암사 승려로 추정되는데 불화의 화기畵記 등의 기록으로 추측하건데 활동 초기 선암사에서 주석하면서 불화를 그리는 화업 이외에도 불사佛事의 재원을 모으는 화주化主로서도 활동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편수로 기록된 평삼은 비현 아래서 불화를 배웠으며 18세기 후반부터 19세기 초반까지 선암사, 용문사 등에서 불화를 제작하였습니다. 팔폭 중에 제7폭인 녹원전법상에 금어金魚 비현과 편수 평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인류의 삶에 큰 지혜와 영향을 끼쳤던 석가모니의 삶과 그 가르침의 모습을 보러 함께 떠나볼까요?



1폭 도술래의상	2폭 비람강생상	3폭 사문유관상	4폭 유성출가상
5폭 설산수도상	6폭 수하항마상	7폭 녹원전법상	8폭 쌍림열반상

도1. 비현 등, 팔상도, 18세기, 비단채색, 건희3962

제716회 큐레이터와의 대화(2023년 3월 15일)

## 『외규장각 형지안』으로 보는 외규장각 운영

김진실, 121호 특별전시실 18:00~18:30

외규장각外奎章閣은 조선 왕실의 귀한 물건들이 가득 차 있던 보물창고였습니다. 한양의 궁궐 창덕궁에 있던 규장각奎章閣에 비견될 만큼 왕실 구성원의 각종 책보와 어제어필, 왕실에서 펴낸 각종 서적들이 봉안되어 있었습니다. 규장각의 각 신들이 봉심과 포쇄를 위해 1년에 한번 씩 외규장각으로 왔습니다.

병인양요(1866년, 고종 3) 때 프랑스군의 약탈과 방화로 인하여 외규장각은 건립된 지 84년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외규장각의 각종 봉안 물품을 관리하기 위해 비정기적으로 작성되었던 『외규장각 형지안』이 남아있어 당시 외규장각의 내부 구조를 그려볼 수 있습니다.

각종 책보와 함께 봉안되어 있었던, 이번 특별전의 주인공인 의궤들은 북쪽 벽과 서쪽 벽에 주로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형지안에는 이 의궤들의 목록이 언제, 어떤 행사를 위해 만들어졌는지 정리되어 있습니다. 본래 비치되어 있던 의궤 약 660여 건 중에 약탈당하여 돌아온 외규장각 의궤는 297건이었습니다. 약탈 직전 외규장각에는 어떤 물품들이 있었는지, 오늘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857년(철종 8) 형지안으로 추정한 외규장각의 내부 구조>

	북						
	북 좌탁		별1가	별2가	별3가	북 우탁	
서	2탁	소탁	정간 구역			소탁	2탁
			정간 좌탁 큰 궤櫃	정간 봉안장 (3층)	정간 우탁 궤 3개		
	1탁						1탁
	남, 출입문						





제716회 큐레이터와의 대화(2023년 3월 15일)

## 고려시대의 불교문화

임혜경, 116호 고려Ⅱ실 19:00~19:30

불교는 삼국시대에 전래된 이래로 꾸준히 사회적 기반을 넓혀 갔습니다. 고려가 건국될 무렵에는 이미 사람들의 심성에 보편적인 사상이자 신앙으로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의 정신세계는 큰 틀에서 불교의 영향을 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에 발맞추어 고려 왕조는 적극적인 숭불崇佛 정책을 시행했습니다. 각지에 사찰을 건립하고, 왕실이 주도하여 각종 불사佛事를 일으켰으며, 명망 있는 고승들을 왕사王師와 국사國師로 임명하여 우대하기도 했습니다. 그 중의 한 사람이 자정국존慈淨國尊 미수彌授(1240~1327)입니다. 속리산 법주사의 주지를 지내는 동안 왕명을 받아 경전을 풀이한 주석서를 92권이나 지었습니다. 지금 고려2실에는 전시되어 있는 자정국존비 탁본을 보면 그의 생애를 상세히 살필 수 있습니다. 법주사 경내에 있는 자정국존비는 일반적인 고승비가 귀부龜趺 위에 비신碑身을 세우고, 그 위에 이수螭首를 얹는 형태인 것과 달리 자연 암반을 직사각형으로 파내어 비좌碑座를 만들고, 다른 재질의 석재로 비신을 만들어 끼워 넣은 마애비磨崖碑 형식의 매우 독특한 고승비입니다.

일반 백성들은 각종 공양구로 부처와 보살에게 공양을 올림으로써 신심을 키워나갔습니다. 불교 공양구에는 다양한 종류가 있는데, 지금 고려2실에는 범음구梵音具와 향로香爐, 음식을 올리는 그릇류가 전시되어 있습니다.

범음구는 깨달음을 일으키는 부처의 음성을 상징합니다. 부처의 음성은 청정하고 미묘하여十方 세계에 두루 울려 퍼지며, 그 음성을 듣는 자들은 모두 마음에 깨달음의 환희가 가득 찬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부처를 공양할 때 범종梵鍾, 금고金鼓 같이 청정한 소리를 내는 도구를 사용하였습니다. 향로는 세속을 정화하는 청정한 향燐의 상징입니다. 향을 태우거나 바르는 것은 번뇌煩惱의 악취와 때를 정화시켜 마음을 청정하게 한다는 의미를 지닙니다. 불교 공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음식입니다. 특히 불단佛壇에 올리는 음식물은 심오한 부처의 가르침을 상징하기도 하는데[법미法味], 그 뜻이 매우 깊고 오묘하여 곱씹을수록 큰 기쁨을 느낄 수 있다는 의미에서 맛 좋은 음식물에 비유한 것이다. 그래서 많은 신자들이 정갈한 그릇에 음식을 담아 공양하였고, 덕분에 지금까지도 고려시대에 사찰에서 사용한 다양한 기형의 청동 그릇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제716회 큐레이터와의 대화(2023년 3월 15일)

## 자기 제작의 시작과 발전

강경남, 303호 청자실 19:00~19:30

도자기陶磁器는 도기陶器와 자기磁器를 합친 말입니다. 도기와 자기를 나누는 기준은 나라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도기는 주로 1,200℃ 아래의 온도에서 굽는 그릇을 의미하며, 자기는 유약을 입혀 1,200℃를 넘는 높은 온도에서 굽는 청자靑磁, 분청사기粉靑沙器, 백자白磁 등을 가리킵니다. 18세기 백자 제작에 처음 성공한 서양에서는 도자기의 종류를 토기, 도기, 석기炆器, 자기, 골회 자기의 5단계로 나눕니다. 그중 1,300℃ 이상 고온에서 구운 것을 자기로 분리합니다. 이 기준에 따르면 청자는 석기에 해당하지만 우리나라 기준으로는 자기에 속합니다.

우리나라는 고려 10세기부터 본격적으로 청자와 백자를 제작했습니다. 전통적인 경질 도기의 제작 기반 위에 중국의 기술을 받아들여 자기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수도 개경(지금의 개성)을 중심으로 한반도 중서부 지역에 주로 분포하던 초기 가마는 중국 오대五代(907-960) 월주요越州窯 가마와 비슷한 형태로 벽돌을 쌓아 지은 대형 가마였습니다. 처음에는 중국 자기의 양식을 따른 청자와 백자를 함께 만들었지만 곧 청자를 중심으로 한 생산 체계로 바뀌었습니다.

10세기 말에서 11세기 초에 국가 운영 체계의 기틀이 마련되면서 전라남도 강진과 해남, 전라북도 고창 등 남서부 지역을 중심으로 자기 가마가 운영되었습니다. 당시 고려 왕실과 중앙 관청은 인력이 많이 필요한 수공업 물품이나 특정 지역에서만 나오는 광물·수산물 등을 ‘소所’라는 지역에서 세금으로 받았습니다. 그중 자기소磁器所는 강진에 두고 왕실과 중앙 관청에서 쓸 최고급 청자를 만들었습니다.

11세기 무렵 벽돌 가마가 점차 사라지고 전통적인 도기 가마 기술을 결합하여 고려의 자기 제작 환경에 맞는 진흙 가마를 새롭게 발전시켰습니다. 또한 좋은 원료를 확보하는 방법과 가마 온도를 조절하는 기술 등이 향상되면서 고려청자의 빛깔이 급격히 좋아졌습니다. 12세기 전반에는 은은한 비취색을 머금은 아름다운 비색청자翡色靑磁를 완성했고 세련된 형태로 발전시켰습니다. 이 시기에는 차도구를 비롯하여 왕실과 국가 의례용 제기를 제작하여 사용했습니다.